

단체장 민간보조·선심성 행정 보조금 재정 낭비

민간 보조금 지정 축소·공모 통해 사업자 선정해야

광주시의회 시정질문...5·18 왜곡 서적 대학 도서관 버젓이 비치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으로 보조금이 지방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서적들이 광주 지역 대학 도서관에 비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최영환(민주·비례) 의원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의 수령, 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및 선심성 행정으로 보조금이 지방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민간보조의 지정을 축소하고 공모나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신규 사업은 반드시 별도의 실무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계속사업은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감액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의부위원이 참여한 심사단을 구성해 사업의 적합성, 수행 상황 능력, 파급효과, 부정·비리 단체 여부 등을 엄정하게 심사할 방침이다.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도 배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광주시의 감사에서 보조금 사업 620건(1246억원) 가운데 379건(898억원)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목적의 타당성, 사업 내용의 명확성,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해 선심성, 낭비성, 중복성 예산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조금이 편성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무장(민주·광산2)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5·18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서적들이 교육 현장에 버젓이 비치됐고 대출까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5·18 주범을 북한 정권이라고 서술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제'는 전남대, 호남대, 광주교대 등 대학 도서관에 비치됐다. 5·18 당시 북한 특전사들이 활동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랏빛 호수'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서영대, 광주교대, 보건대 도서관 등에 비치돼 대출이 가능했다.

5·18을 좌파와 중북세력이 일으킨 폭동

으로 주장한 '역사로서의 5·18'은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 광주시가 운영하는 중앙도서관, 금호평생교육관에서 볼 수 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쓴 '솔로몬 앞에서 5·18'은 주요 대학 도서관을 비롯해 산수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비치됐다.

정 의원은 "5·18 역사 왜곡 서적의 비치 현황을 파악하고,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5·18 진상을 알리는 도서를 배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도서관에 비치된 5·18 왜곡 서적은 5·18 진실을 비교하기 위해서 비치된 것이다"며 "5·18 왜곡 서적은 체계적인 조사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하고 5·18 진상을 알리는 도서를 전국 도서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지역 밀착 건의안 '눈길'

오염물질 배출량 근절·농사용 전기요금 개편 철회 등

전남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회성 요구에 머물지 않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도 주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의 14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전경선(민주·목포5)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난 만큼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 측정' 형태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계획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한 건의안도 제출됐다.

최명수 의원(민주·나주2) 등 42명은 이날 '농민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체제 개편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냈다.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한전의 '전기요금체제 개편 설명자료'를 인용,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농업경영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사용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영농자재비, 영농광열비 등까지 증가하고 농업경영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선국(민주·목포 3)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도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내년 7월부터 공원 효력이 사라지는 전남지역 도시공원 면적 151곳(28.3km²)에 대한 보상비만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말레이시아 국제뷰티박람회 820만달러 수출 계약

광주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19 국제뷰티박람회(IBE)'에 참가한 지역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 총 82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13회째를 맞은 '말레이시아 국제뷰티박람회(IBE)'는 국제 뷰티 화장품&스킨케어, 헤어&네일, 스파&웰니스 등 뷰티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박람회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 뷰티·미용 기업 680개사가 참가하고 25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광주지역에서 (주)매종 등 5개 화장품 관련 기업이 '광주 공동관'을 별도로 마련해 천연화장품 등을 출품하고 바이어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업체와 (주)라피네제, (주)매종, (주)이바이오피지가 1년에서 3년간 150만달러에서 30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했다.

또 (주)룩바이오텍, (주)올댓네이처, (주)청도 등도 50만~8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총 6개 기업이 82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달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수출 계약으로 지역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 향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산·학·연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온 것이 성과를 낸 것"이라며 "광주의 160여 개 화장품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손자랑 오손도손 그림그리기 광주시 동구는 14일 소동경로당인 지원1동 버들경로당에서 어린이들과 어르신 30여 명이 함께 어울려 협동작품을 만드는 '손자랑 오손도손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 소음법 신속 제정하라”

광주 광산구 등 군비행장 영향권 12개 지자체 협의회

광주 광산구 등 군용 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영향권에 있는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군 소음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된 군 소음법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국가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용 비행장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군용 비행장 주변에선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군지협은 올해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에 청원하고, 국방부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군지협은 관내 군용 비행장 등이 있는 12개 지자체가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협의체로, 회장은 정장선 평택시장이 맡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 관심 폭발

400여건 접수...이달말 마감 광주형 일자리·상생 주제 많아

광주형 일자리를 적용한 첫 모델로 주목받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에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합작법인 명칭 공모를 진행 중으로, 명칭 공모가 시작된 이후 13일까지 무려 400여건이 접수되는 등 시민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와 상생 등의 의미를 담은 제안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합작법인 명칭 공모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가 깔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명칭 공모는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수상작 22건 응모자에게는 총 4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사를 위해 지난달 말 광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기업인 설명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시와 현대차를 제외한 사실상의 첫 투자자인 광주는 행으로부터 100억원의 투자 의향서를 받는가 하면, 타지역 기업·기관 투자 유치를 위해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 절차인 투자자 모집과 법인설립을 올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장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1년 하반기 시업생산 및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